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정말 못 나올 뻔했습니다.

어제 교사들과 교역자들 모임이 있어서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를 기도회로 돌릴까 하다가 일단 잤는데, 성령님은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또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약수샘을 둘러보고 지금 온 것입니다.

◎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1. <예수님을 보낸 뜻과 목적>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자녀급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두고 2000년 동안 역사해서 이제는 다 성장했으니, 남녀를 결혼시킨 것과 같은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마치 어렸을 때는 ‘어린이 취급’을 하지만, 다 성장하면 어린이 취급을 안 하는 것과 같다.
2. <성약 때 메시아를 보내는 목적>은 ‘신부급 구원’을 이루고, 이들을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일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3.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녀’로서 일체 시키는 일

을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대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과 일체 되게 해 주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돌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를 접붙이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포도나무다. 하나님은 참포도나무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접붙여야 된다. 일체 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일체 된 것이다.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이다.” 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신약역사를 펴셨다.

4. <새 시대>가 왔는데 똑같이 ‘예수님’ 이 다시 오시면, <자녀권 세계>를 ‘신부권 세계’ 로 다르게 만들 수가 없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사명자’ 가 와야 ‘신부권 세계’ 로 만들 수 있다. 그가 와서 ‘신부권 세계’ 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게 한다.
5. <일체> 시키는 것이란, ‘삼위를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삶, 신부로서 사는 삶’ 을 살게 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남녀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일체 되었다고 하듯, 그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면 일체 되었다고 한다.
7.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상대’ 에게 주었을 때, 그리고 <상대>도 ‘자신의 모든 것’ 을 다 주었을 때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
8. <사랑>이 있어도 ‘사랑의 대상’ 이 없으면, 그 사랑은 소멸돼 버린다. <사랑의 대상>이 그리도 귀하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

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이게 하셨다. 고로 구약 4000년 동안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신약 2000년 동안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신부 시대가 되어 하나님은 시대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신부의 권세’를 주시어, 그를 믿고 따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신랑’으로서 왔기에 ‘신부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 역사를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라고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때가 지금 이때다.

9. <물건>이나, <작품>도 싫어하면 안 산다. 좋아야 산다. 그래야 그로 인해 기쁨을 얻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

10. <작품>도 자기가 좋으면 “이 작품은 아주 특이하다. 보기와는 다르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며 늘 증거하고 이야기하며 사랑해 준다.

11. <사랑>이라는 것은 껴안고 뽀뽀하고 서로 잡아당기며 좋아하는 이성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나무>를 사랑하면, 거름도 해 주고, 벌레도 잡아 주고, 소독도 해 주고, 물도 주고, 전지해서 죽은 가지도 잘라 주고, 또 굵은 가지들이 쭉 뻗을 수 있도록 주변 가지들을 잘라 수형을 잡아 주면서 세밀히 다루며 관리한다. 이것이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무를 껴안고 뽀뽀

하고 잡아당긴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것도 수십 가지가 있다. 이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도 수만 가지의 사랑의 세계가 있다.

12.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리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이런 사랑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해 해야 된다.
13. <나무>를 사랑한다고, 나무를 껴안고 있으면 안 된다. - 그러면 바람이 불 때 쓰러져서 죽는다. <물>도 주고, <해충>도 잡아 주고, 넘어지면 받쳐 줘야 된다. 그리고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려면 전지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이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14. 아름답고 멋지게 가꾼 나무는 사고 싶은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손질’ 하고 가꾸라. 이는 문자 그대로 얼굴을 가꾸고 머리를 손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얼굴도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
15.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피부를 관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다. <관심, 관리> - 이것이 다 ‘사랑’이다.
16. <생명 관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 ‘육적 변화, 영적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

◎ 어제 모임 때 전해 준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17.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는 ‘이만큼 했으니 많이 됐겠지?’ 하지만, 보통으로 해서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안 되어 있다. 왜? 자기가 행한 것을 보면 안다. 몸짜 붙이고, 마음짜 붙이고, 혼짜, 영짜 붙여서 몇 년씩 몸부림치며 악착같이 행하고 공적을 세워야 표가 나지, 보통으로 해서는 표가 안 난다. <월명동>을 보아라.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서 몸부림치며 만들고, 계속해서 변화시켰다. 보통으로 했으면, 지금같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같이 <자기 신앙>도 ‘자연성전’을 만들듯이 해야 된다. 과감하게 해야 역사가 확 뒤바뀐다.

18.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과 같다.” 하셨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신부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몸을 가졌으니, <월명동 자연성전>을 개발하듯이 ‘하나님의 구상’으로 자기를 사정없이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꼭 물어보고 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된다.

19. 여러 가지를 자꾸 만들고 갖춰라. 그러면 여지없이 멋있고 아름답게 된다.

20. 자기가 많이 했다고 하면서 영의 세계를 가 보면, 실제로는 생각과 다르다. 너희가 한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어 있다. 사람의 심리가 조금 해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1. <전도>도 100명, 200명씩 해야 ‘월명동 자연성전’ 같이 변

화된다. 2명, 3명은 ‘기독교 기본 신앙’이다. 진짜 뒤집어지면 수백 명, 수천 명씩 전도한다. 이같이 해야 어마어마한 역사를 쓰게 된다.

22. <주>가 하듯이 해라. <주>를 따라 해라.

23. <자기 영>이 ‘월명동 자연성전’ 같이 변화되려면, 엄청나게 행해야 된다. <일생>을 두고 하는 것이다.

24. 하루, 이틀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25.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어 놓으니, 이제는 누가 와서 손을 안 대도 멋있지 않느냐. 이같이 <자기 신앙>도 만들어 놓으면 ‘멋있고, 아름다운 영광의 영’이 된다.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 놓고 살게 된다.

26. 동그래산에서 감람산 팔각정을 쳐다보면 팔각정이 안 보이기에 주변 나무들을 자르고 내려와서 보았다. 그런데도 팔각정이 조금밖에 안 보였다. 나무를 자를 때는 많이 자른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려와서 보니 아니었다. 생각보다 많이 자르고 난 후에야 팔각정이 중간까지 보였다. 이와 같이 <신앙>의 일도 ‘많이 해야’ 자기 영이 어느 정도 급에 있는지 알 수 있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